



ITU-T SG 3 및 Working Parties 회의*

김문수 · TTA 요금 및 상호접속전담반(TF 02.07) 간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서비스전략연구팀 선임연구원

1. 개요

ITU-T Study Group 3(이하 SG 3)은 통신 관련 기술 표준을 다루는 여타 연구그룹과는 다르게 통신 경제 및 정책이슈를 포함한 요금, 회계 및 국가간 정산원칙 등의 표준화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른 연구그룹이 기본적으로 통신 관련 기술자들이 참가하여 기술표준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SG 3의 경우 참가자 대부분이 통신경영/ 경제/ 정책분야의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자국 및 자사의 이해관계를 위한 이슈화와 표준화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국가간,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직접 연관되므로 표준화 대상을 상정하고 연구를 진행시키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며, 또한 ITU의 권고안으로 승인되기까지의 과정 역시, 복잡한 절차와 시간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다.

SG 3에는 4개의 작업반(Working Party)이 있다. WP 1/3은 통신망 및 서비스 특성에 적합한 요금, 회계 및 정산원칙 개발을, WP 2/3는 통신시장 진화에 적합하도록 ITU 권고안 D 시리즈의 제·개정 작업을, WP 3/3는 경제 및 정책이슈와 관련 비용 모델의

개발을 위한 각 지역별 연구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WP 4/3는 요금 및 회계원칙을 다루기 위한 용어 및 정의제정을 주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년 회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SG 3 본 회의와 WP 1/3 및 2/3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151명이 참가하여 열띤 토론이 있었다. 본 고에서는 SG 3 본 회의와 WP 1/3 및 2/3의 주요 의제와 결과를 간략히 살펴보고 특히, Working Parties에서 심도있게 다루었던 주요 이슈들을 고찰하여 국내 관련 사업자와 정책당국자를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2. 회의 주요의제 및 결과

가. 주요의제

5일간 진행된 이번 회의는 첫 날과 마지막 날에 SG 3 본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은 주로 WP 1/3 및 2/3의 연구(question)를 주로 다루었다. 또한, SG 3 본 회의에

* 본 고에서 언급된 SG 3 & Working Parties 회의의 모든 문서는 다음 Web site에서 참조가능.
<http://www.itu.int/md/meeting.asp?lang=&type=meetingdesc&parent=T01-SG03-020610>

서는 기타 WP 3/3 및 4/3와 관련한 내용을 매우 간단하게 다루었다.

SG 3 본 회의의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 4개의 수정 권고안(Resolution 1, section 9 of WTSA(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 Assembly), Montreal 2000) 심의
- Worl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Conference(Istanbul, 18~27 Mar. 2002)의 관련 내용 논의
- 앞으로의 SG3 및 WPs 회의일정 논의

그리고 각 Working Party에서 다루었던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 Workign Party 1/3
 - 기고서 논의
 -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GII) : Internet(IP telephony, International Internet Connection(D.50) 논의)
 - IMT-2000의 요금 및 회계원칙
- Workign Party 2/3
 - 기고서 논의
 - Remuneration of traffic terminating on the mobile network
 - Review of Recommendation D.93 and D.140
 - Shortening of the settlement period
 - Code of Conduct
 - TSB survey on call-back

나. 회의 주요결과

1) SG 3 본 회의 결과

SG 3 본 회의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WTSA에서 논의되었던 4개 개정안을 ITU-T의 D 시리즈 권고안으로 승인하였다. 4개의 개정된 권고안은 D.000(Terms and Definitions for D-series), D.140(Accounting rate principles for international telephone services), D.180(Occasional provision of circuits for international sound - and television - progrmme transmissions) 그리고, D.190(exchange of international traffic accounting data between administration using EDI techniques) 이다. 그리고 기타 관련 국제회의(WTDC: Worl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Conference; ITR: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의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금년말에 있을 SG3 및 Working parties 회의를 예정대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2) Working Party 1/3의 주요 회의결과

Working Party 1/3에서는 첫째, IP Telephony, International Internet Connection 그리고 Enhanced Signalling과 관련된 리포트인 COM 3-R 5 and COM 3-R 6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특히, 이와 같은 연구를 지속적으로 WP 1/3에서 진행하도록 의결하였다.

둘째, IP telephony와 관련하여 권고안 E.370 (“Service Principles when public circuit-switched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networks interwork with IP-based networks”)에 상업적 모델을 추가하여 수행하도록 결정하였다.

셋째, 국제 인터넷 접속(International Internet Connection, 권고안 D.5와 관련)과 관련하여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토록 하기 위하여 기존 라포처 그룹(Rapporteur group)을 해체하고 중국의 Ms. Chen를 라포처로 하여 보다 강화된 새로운 IIC 라포

처 그룹(tsg3internet@itu.int)을 구성하여 권고안 D.9, D.10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의결하였다. 특히, IIC 라포처 그룹의 주요 연구 이슈는 다음과 같다.

- 트래픽 비율(traffic proportion)이 IIC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인가?
- 트래픽 흐름 및 패턴(traffic flows/patterns) 연구 이외에 고려되어야 할 다른 요인이 존재하는가?
- 현 정산체계가 합의된 충분한 논거를 가지고 있는지?

또한, IIC와 관련하여 ITU의 BDT(ITU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Bureau)에 중국 모델의 확장 및 여타 국가 적용가능성과 개발도상국의 데이터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기로 하였다.

넷째, Enhanced signalling과 관련한 ATM 및 ATM lite에 대한 기고문은 없었으며, 이에 대한 관심이 적어 Enhanced signalling 용어는 제외할 것으로 잠정 결정하였다.

다섯째, IMT-2000 연구의 라포처 Mr. Leslie Martinkovics(USA)가 라포처 그룹의 연구작업 결과인 “the revised draft baseline document for charging and accounting principles for IMT-2000”을 제안하였고, 이는 향후 연구 시작점으로 합의하고 지속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것을 의결하였다.

마지막으로 HCD(Home Country Direct) and ITFS(International Toll-Free Service)에 대한 평가를 위한 이동망 및 pay-phone에 관련 이슈 도출과 연구를 위해서 Mme T. Evert(USA) 및 Sr. Claude Araripe(Embratel)를 공동 라포처로 선임하였다.

Working Party 1/3에서 실질적으로 권고안을 개정하거나 제정한 내용은 없었으나, IP Telephony 관련 국가 간 회계 및 정산체계 정립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국가간 인터넷 접속 관련 라포처 그룹의 구성이라는 점은 매우 특기할만한 사항이다. IP Telephony와 국제 인터넷 접속은 한국의 이해관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 인터넷 접속과 관련하여 중국이 EU와 연대하여 북미와 대항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는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라도 관련 전문가가 IIC 라포처 그룹에 참여하여 공동 연구와 국내 이해를 대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제 시작단계인 IMT-2000 관련 요금 및 회계원칙 연구 역시, 관련 전문가의 참여가 시급하며 국내 상황과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연구초기부터 참여하여 반영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3) Working Party 2/3의 주요 회의결과

다음으로 Working Party 2/3의 주요 회의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Working Party 2/3의 의장으로 G. Tsalkovitch(프랑스)를 선임하였으며, 2001년 12월의 Working Party 2/3 회의의 ‘COM 3-R 7’을 수정없이 채택하였다.

둘째, call-back에 관한 TSB(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Bureau)의 국가별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논의되었으며,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고 설문지상에서의 통계처리 문제점을 보완하여 계속해서 수행할 것을 의결하였다.

셋째, 갱신된 요금(updated indicative target rates)과 관련하여 참가국 대표들의 요구사항을 리포트에 반영하도록 보완을 의결하고 SG 3에 승인을 요청하였다.

넷째, 회계 및 정산률에 대한 설문에 대한 대표들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수정 설문지를 바탕으로 조사를 계속 진행할 것을 의결하였다.

다섯째, 권고안 D.140의 첨부 A(Annex A)의 라포처 그룹 수정안에 대한 연구를 채용하였고 이를

SG 3에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국가간(국제 사업자간) 정산기간의 단축 관련 문서(The draft Recommendation on shortening of the settlement period(COM 3-17))가 여러 국의 환영을 받았으나 운용상의 기술적 문제점이 있어 일본에 타협안을 모색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 승인여부는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도록 결정하였다.

일곱째, 이동망 착신료에 대한 라포처 그룹 회의를 통해서 한국(COM 3-20) 및 INTUG(COM 3-19)의 기고문을 논의하였고, 이는 계속해서 연구할 여지가 있어 연구 이슈로 결정하여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밖에 'Code of conduct'에 관한 사무국의 법적 의견을 논의하였고 기고서에 기반한 작업을 계속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비용모형에 관한 책자(The draft text of the handbook on cost methodologies)를 채택하고 SG 3에 출판승인을 요청하였으며, 이번 회의에 논의되지 못한 시리아의 'Contribution COM 3-21'은 다음 회의에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상의 Working Party 2/3 회의에서의 결과로부터의 핵심사항은 이동망의 착신료 관련 이슈라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2001년 5월 러시아 대표가 이동망에 착신하는 국제 통화호에 대한 착신료가 여러 국가에서 매우 높다는 사실을 기고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러시아의 기고에 대하여 동년 6월에 SG 3 및 WP 2/3 회의에서 이동망 착신요금을 조사하기 위한 라포처 그룹을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이슈를 연구하도록 논의하였다.

- 이동망 착신료 도출을 위한 비용원칙을 포함한 일반원칙 개발
- 가능하면 Recommendation D.140에 대한 수정 제안
- 고정 및 이동망의 국제 착신료 조사보고

- 개발도상국 및 최소개발국(least developed countries)의 이동망 착신 관련 이슈 등

이러한 이슈 하에 금년 6월 회의에서는 관련 이동망, 고정망 그리고 규제 당국자들의 대표들이 6월 6일 및 7일 양일에 걸쳐 이동망 착신료 관련 라포처 그룹 회의를 통해서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이를 Working Party 2/3 회의에서 이동통신서비스가 성숙기에 들어선 국가들을 중심으로 매우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이동통신사업자, 고정통신사업자 그리고 규제자간의 이해관계가 매우 커져 구체적인 합의는 도출되지 못하였으나, 이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이에 대한 문제는 국내 이동 및 고정사업자의 상호접속료 문제와 연관되어 매우 중요한 이슈로 생각된다. 비록 SG 3의 주요 관심사가 국가간 혹은 국제 통신사업자간 정산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더라도, 국내 고정 및 이동망간의 상호접속 문제와 맥락을 같이 할 것으로 보인다. 상호접속 시장에서의 문제의식과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을 경주했던 관련 사업자와 정책 당국자들의 경험은 SG 3에서의 이동망 착신료 관련 표준화 과정에서 매우 유용하고, 유리하게 활용될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맺음말

ITU-T의 SG 3은 기술개발의 결과를 표준화하는 연구반은 아니지만 엄연히 표준화 연구그룹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여타 기술표준화 승인절차(AAP: Alternative Approval Process) 이외에 TAP(Traditional Approval Process)라는 절차를 두고 있다. 이는 SG 3에서 의결 또는 채택된 권고안은 ITU 회원국에는 어느정도 구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가간 합의사항으로서 결정됨

을 의미한다. 그래서 TAP 절차에는 3개월간의 회원국들간 협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최종 결정까지는 상당한 논쟁이 있으며, 이해관계가 민감한 부분은 최종 결정과정에 이르기 전에 상당한 수정이 있기 마련이다.

금년 6월에 개최된 SG 3 및 Working Parties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도 확실한 결론에 도달하여 결정된 사항은 거의 없으며 과거 계속되었던 내용이 반복되면서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되는 과정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SG 3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다루게 될 IP Telephony, 국제 Internet 접속 및 정산, IMT 2000의 요금 및 회계원칙 그리고 이동망 착신료 관련 등의 이슈는 국내사업자 및 정책당국자에게도 초미의 관심대상이 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SG 3의 특성상 기술자보다는 경제 및 정책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관계로 휴먼 네트워크 즉, 대표들 간의 인간관계 또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국내 사업자 및 규제 당국자 측면에서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동기술 표준 모색 세계최대 단체 출범

노키아·인텔·IBM·마이크로소프트(MS) 등 전세계 200여 IT업체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이동통신서비스 기술표준화 단체가 6월 12일 출범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번에 결성된 표준화단체는 국제 무선인터넷 표준화기구인 WAP 포럼과 지난해 11월 노키아의 주도로 설립된 '공개 모바일 아키텍처 개발기구'(OMA)가 통합된 것으로 '오픈 모바일 얼라이언스'(OMA)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참여업체들은 이 단체를 통해 이동통신사들이 단말기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개 표준 기술에 기반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앞으로 WAP 포럼과 OMA는 OMA의 산하기관단체로 활동하게 된다. 또한 ▲휴대폰 위치기반서비스 기술개발 단체인 '위치 상호운용 포럼'(LIF) ▲휴대폰 메시지 기술 개발단체인 '혼합 미디어 메시징 상호운용 그룹'(MMSIG)과 '와이어리스 빌리지' ▲데이터 동기화 표준 규격 단체인 '싱크 마크업 언어(SyncML) 개발기구' 등도 OMA의 산하기관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가 합쳐짐에 따라 ▲통신 단말기 및 장비 분야에서 노키아·모토로라·에릭슨·루슨트 ▲반도체에서 인텔·텍사스인스트루먼트(TI)·퀄컴 ▲컴퓨터에서 IBM·휴렛 패커드(HP) ▲이동통신에서 보다폰·NTT 도코모 ▲소프트웨어에서 MS·오라클·BEA 시스템스 ▲미디어에서 월트 디즈니 등이 모두 OMA 소속업체로 자리잡았다. OMA는 우선적으로 차세대 무선인터넷 언어인 확장가능형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언어(xHTML),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MMS), 위치기반서비스 기술 등의 표준화를 추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휴대폰 분야에서 CDMA와 GSM 기술, 핸드헬드PC 분야에서 팜·MS·심비안 등 3개 운영체제(OS)를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한 디지털저작권 관리(DRM)나 전자지불시스템 등 비즈니스 분야의 기술통합에 나서기로 했다. IBM의 존 프리얼 부사장은 "고객들은 단말기 종류나 이동통신 회사에 관계없이 원하는 정보를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기를 원한다"며 "이동통신 업계가 고객의 욕구를 원활히 충족시킬 수 있다면 관련산업의 성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